
산업위생담당자의

활일

가톨릭의대산업의학연구소

소장 이 광 목

현재 산업장에는 산업위생 보건담당자가 배치되어 있고 이들은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중에서 임명되며, 선임후 1년 이내에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후 2년에 한번씩 재교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실무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에 손을 댈것인지 망설이게 되는것이 현상이 아닌가 한다. 즉 이들 산업위생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수행할것인지 아무도 생각해 본일이 없고 지도한일도 없는것 같다. 산업보건에 관련된 산업보건전문가도 행정부서의 담당자도 막연히 산업장에 그들을 배치하는 것으로 잘 될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탁상에서가 아니고 또 교과서에 의해서가 아니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없어 현장에서 요구되는 일이 어떤것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산업장에서 오랜기간 보건관리를 담당하여 오신 여러 전임보건관리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현장경험이 없는 대학교수들의 의견에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짧은 지면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떤점이 잘 못된 생각인가 또 실무는 어떤것이어야 하는

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산업장의 환경위생관리

일반적인 위생담당과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위생관리”라는 관리나 담당이라는 말이 행정부의 직책의 명칭과 같기 때문에 행정적인 담당으로 그치는 수가 많다. 즉 1년에 1회씩 실시하는 정기 건강진단의 시기와 작업자의 동원을 위한 행정적인 일, 감독관청과의 연락 등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요구되는 것은 작업자의 건강을 유지 향상시키는 실무적인 일이어야 한다. 우선 담당자의 기본적인 위치는 어떤것일까? 산업장의 위생관리는 건강관리, 환경관리, 작업관리의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위생관리의 목적은 사람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을 보다 사람에게 알맞는 환경으로 조성해 나가는 일일것이다. 이러한 목적의식이 없으면 작업환경을 측정한다든가, 건강진단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실시하였다는 기록만 남기게 되며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만일 산업위생담당자가 실무에 임할때 산업장의 전체를 보는 눈이 없이 극히 부분적인 말단적인 일에만 눈을 돌린다면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위생관리의 개

념과는 동떨어진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현재 산업장의 보건담당자는 간호원, 간호 보조원, 그리고 환경위생기사들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이 산업보건과 무관한 것이고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되는 위생관리나 산업보건학에서 요구하는 일들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들을 3일간의 훈련으로서 산업보건의 전문지식을 넣어 주었다고 생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이러한 착상은 산업장에 산업보건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의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유래된 것일 게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의사의 배치는 어떤 선진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지 않다. 좀더 전문적지식을 가진 담당자가 배치되거나, 전문가들과의 빈번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점에도 문제가 있다. 많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의 경우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좀더 전문적 지식을 넣어줄 수 있는 교육기관(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교육을 필하고 소정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의 직업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산업위생담당자의 위치가 직책이어서는 안되며 특수한 독립된 직종으로서 확립되어야만 교육을 받으려 할 것이고 그 직종을 천직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과 같이 직종이 아닌 직책인 상태가 계속되는 한 산업위생담당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을 것이다.

2. 위생관리조직에서의 담당자의 위치

보건담당자는 산업장의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생각해 보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사업장의 책임자

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고 이들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최고의 책임을 맡고 있을뿐 실제적인면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조항은 산업장의 보건관리가 법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최고 책임자가 처벌받는다는 뜻 이외에, 실제 책임자는 못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무면에서 다각적인 현장이나 실제정보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담당자들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인 것이다. 즉 담당자의 업무의 하나로서 현장의 정보를 수집, 집약하고 또 분석·평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대책을 세우도록 조력하는 일을 들 수 있다. 담당자들은 말단적인 실무도 중요하지만, 사업내의 위생관리의 방향을 잡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다른 부서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담당자들은 조직내에 있어서 환경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산업장의 총괄책임자 외에 의사로서 보건관리자로 임용된 경우 실제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책임을 져야하나 보건관리자의 경우 1,000 명이상의 고용원이 있을 경우에만 전속이고 그 외에는 촉탁의로서 사업장에 있는 시간이 적어서, 위생관리나 보건관리에 그들의 의학지식을 바탕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지만 역시 세부적인 환경관리정보나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다. 산업위생담당자와 건강관리보건담당자는 보건관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건관리자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담당자들의 두번째 업무가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업무는 보건담당자나 환경측정사(앞으로 있게될) 그리고 현장의 감독, 작업원 등을 연결하여 주는 가교역할을 하여야 한다. 효과적인 위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사업주, 보건관리자, 현장의 작업원 그리고 본인들의 상호연관을 원활히 하는 가교역할을 하여야 한다.

3. 산업위생보건담당자에게 요구되는 능력

우선 환경관리정보를 이해하는 힘과 정보를 통합 분석하여 평가하는 능력이 요망되는 것이다.

즉 자기가 맡은 사업장 또는 그외의 일반적인 직업환경관리에 관한 다각적인 정보, 예를 들면 의학적정보, 기술적정보 또는 작업내용 등 여러분야의 정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깊이에 비해 비교적 광범위한 전문적 지식을 익혀야 한다. 이에 더해서 자기자신의 전문분야인 작업환경관리에 관해서는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효과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보를 통합·분석하여 최선의 대책을 세울수 있어야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적극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관리나 보건관리의 업무는 빛을 내기 어렵다는데에 문제가 있다. 사업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판매관리 등은 결과를 수량화하기 쉽기 때문에 그 효과를 알기 쉽다. 반면에 환경관리는 정보의 수량화 또는 효과의 수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좋은 일을 수행하고도 그 결과가 내세울 것이 없다. 물론 오랜기간이 경과되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만 사업주로서는 불만스러운 일로 되기 쉽고, 하는 사람 본

인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관리에 관한 자료나 계획은 설득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 일쑤인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환경관리는 더욱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산업위생보건담당자의 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직책이 아닌 독립된 직종이 확립되어야 하고, 하여야 할 업무는 현장의 세부적인 정보로부터 사내의 전반적인 정보까지 수집·분석평가하고 대책을 세우며, 사업주(관리층), 보건관리자, 현장의 공학자와 근로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가교역할이라 말할수 있겠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인 업무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